

# 장관감염증

2차 감염 예방에 대해



# 장관감염증

장관감염증이란 병원체가 장내에서 증식하여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증을 말합니다.

감염증	잠복기*	증상	비고
콜레라	수시간~5일 (보통 1일 이내)	쌀뜨물 같은 설사	중증인 경우에는 복부의 불쾌감과 불안감이 지속되며, 갑작스런 설사와 구토가 시작되고 혈액이 떨어져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
세균성 이질	1~5일 (대다수는 3일 이내)	전신 권태감, 오한을 동반한 급격한 발열, 수양성 설사	감염력이 높고 식기, 것가락 등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.
장출혈성 대장균	2~14일 정도 (보통 3~5일)	수양성 설사, 혈변, 복통, 발열	주요 균주는 0157, 0111, 026 등. 소와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. 감염력이 강해 소량의 균만 입으로 들어와도 감염됩니다. 어린이나 고령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중증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혈뇨 및 빈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(용혈성 요독증후군).
장티푸스· 파라티푸스	7~14일	발열, 두통, 식욕부진, 전신 권태감	대부분이 해외에서 감염됩니다. 설사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.

\*잠복기: 균이 신체에 들어간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

이러한 감염증 외에 감염성 위장염(노로바이러스, 로타바이러스 등)이 있습니다.

장관감염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염됩니다.

- 병원체에 오염된 음식을 먹을 때.
- 병원체에 오염된 곳(트레이, 손잡이, 문 손잡이 등)을 만진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.



## 2차 감염에 주의를

'2차 감염'이란 환자의 대변에서 나온 병원체가 손가락이나 식품, 물건을 매개로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.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.

※ 설사·복통·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.

### ■ 음식 조리, 식사 전

- 균이 식품이나 식기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도록 합니다. 싱크대가 아닌 다른 세면대에서 씻는 것이 이상적입니다.
- 환자는 대변에서 균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 내 음식 조리를 되도록 피합니다.
- 환자는 음식 조리 및 식사 전, 화장실 사용 후에 충분히 손을 씻고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소독합니다.
- 가족도 식사 전 및 화장실 사용 후 등에는 손을 충분히 씻도록 합니다.

#### [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]

- 가열할 수 있는 것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 (중심 온도 75°C로 1분 이상)합니다.
- 생야채 등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합니다.
- 만든 음식은 가능한 빨리 먹도록 합니다.
- 식기는 설거지 후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소독액에 담가 소독합니다.
- 냉장고 안도 깨끗이 청소합니다.



### ■ 세탁

- 환자의 대변으로 오염된 속옷, 의류, 침구는 다른 가족의 세탁물과 따로 세탁합니다.
-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묻어 있는 대변을 제거하고 오염을 없앤 후 행궈냅니다. 오염된 물은 화장실 변기에 내려줍니다.
- 소독이 필요하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에 30~60분 담가둡니다(p4 참조).
- 의류, 이불은 햅볕에 말려 잘 건조시킵니다.



## ■ 집단생활

- 열이 있을 때는 등원, 등교를 자제합니다.
- 놀기 전후에는 손씻기를 충분히 합니다.
- 입에 들어가는 완구 등은 깨끗이 닦고 필요에 따라 끓는 물 등으로 소독합니다.
- 설사가 있을 때는 수영, 물놀이, 집단으로 놀거나 급식 당번은 자제합니다.



## ■ 화장실, 오물 처리

- 배변 후 손씻기: 균은 화장실 휴지를 여러겹으로 쓰더라도 손에 묻을 수 있습니다. 휴지로 닦은 후에는 되도록 다른 곳을 만지지 말고 즉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.
- 화장실을 청결하게: 설사의 비말이 묻기 쉬운 곳은 평소에 자주 청소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합니다. 소독은 소독용 알코올로 닦는 것이 간단합니다.
- 오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합니다.
- 오물을 처리한 후에는 손을 잘 씻고 필요에 따라 소독합니다.
- 기저귀를 갈 때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저귀 교환은 정해진 장소에서 합니다.
- 변기 레버나 문 손잡이 등 균으로 오염되기 쉬운 곳은 소독용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소독합니다.



## ■ 목욕

-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엉덩이를 잘 씻어 균을 제거합니다.
- 환자의 입욕은 제일 나중에 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.
- 목욕물은 매일 갈아주고 욕조 등도 청결하게 청소합니다. 수건 및 배스타월의 공유는 피합니다.



# 가정에서 사용하기 쉬운 소독액과 사용법

## 소독용 알코올

손가락	충분한 양을 손바닥에 데어, 손바닥→손등→손끝→손톱 밑→엄지손가락→손목 순서로 문지른 후 충분히 건조시킵니다. ※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손씻기를 합니다.
변기, 화장실 문 손잡이 등	페이퍼타월 등에 알코올을 충분히 묻혀 닦아내고 자연 건조시킵니다. ※ 고무제품, 합성수지 등은 변질되므로 장시간 사용 금지.

## 차아염소산나트륨(0.02%)

속옷, 의류, 침대시트 등	의류의 오염을 제거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에 30~60분 담근 후 세탁합니다. ※ 표백작용을 하므로 금속에는 사용하지 말 것. ※ 소독액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비닐 장갑 등을 사용할 것. ※ 충분한 환기를 할 것. ※ 산성 세제와 섞어서 사용하지 말 것.
-------------------	---

## [차아염소산나트륨(소독액) 만드는 법 약 0.02%(200ppm)]

주방용 염소계 표백제  
(차아염소산나트륨 5~6%)  
원액 10mL를 물에 희석하여  
2L로 만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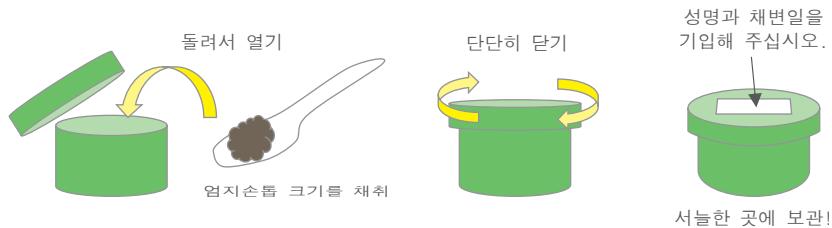


# 채변 방법에 대해

균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를 위해 대변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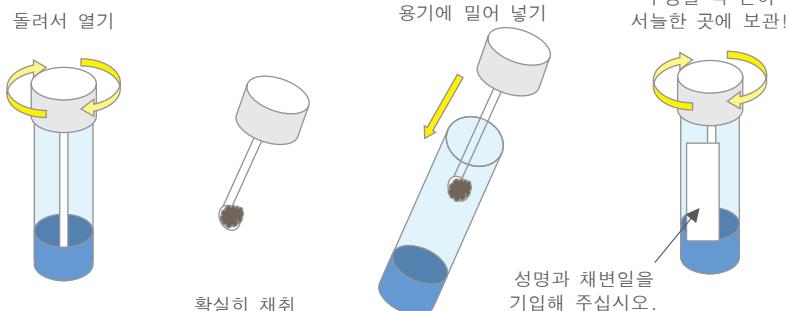
## ■ 녹색 용기

- 엄지손톱 크기 이상의 대변을 채취하여 주십시오. (대변의 양이 적으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- 대변을 용기에 담은 후 뚜껑을 꼭 닫고 비닐봉지나 종이백에 넣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.
- 사용한 나무 숟가락은 비닐봉지에 넣어 끓어서 가연성 쓰레기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.



## ■ 스틱

- 사용 전의 용기는 실온에 보관해 주십시오.
- 대변은 1회당 1개의 용기에 담아 주십시오.
- 용기는 뚜껑을 돌리면 열리며, 뚜껑에 채변용 스푼이 달려 있습니다.
- 스푼으로 대변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양을 채취해 주십시오.
- 대변을 용기에 담은 후 뚜껑을 꼭 닫고 비닐봉지나 종이백에 넣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.



# 올바른 손씻기 방법

손을 씻기 전에

- 손톱은 짧게 잘라둡니다
- 시계, 반지는 빼둡니다

1



흐르는 물에 손을 잘 적신 후,  
비누를 묻혀 손바닥을 잘  
문지릅니다.

2



손등을 펴주듯이 문지릅니다.

3



손끝과 손톱 밑을 꼼꼼히  
문지릅니다.

4



손가락 사이를 씻어줍니다.

5



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 
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 
씻어줍니다.

6



손목도 잊지 말고 씻어줍니다.

(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일부 발췌)

비누로 세정한 후 물로 충분히 헹구고 깨끗한 수건 또는  
페이퍼타월로 잘 닦아내어 건조시킵니다.

## 업무 제한에 대해

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 관련업 종사자  
등은 법률에 따라 균이 배출되지 않을 때까지  
음식물에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 
제한합니다.



